

# 월간:知



이재원 Market Analyst  
jaewon2.lee@yuantakorea.com

## 백화점 다음타자 찾기, 몰아치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 외국인 소비 회복은 백화점에서 먼저 확인, 소비의 질은 차별화 진행

최근 백화점의 신고가 랠리는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 소비 회복을 가장 먼저 반영한 결과다. 월별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1월 1.1조원 수준에서 5월 2.1조원으로 87.7% 급증했다. 소비 비중은 쇼핑 38%, 숙박 20%, 의료·웰니스 15% 순으로 나타났다. 단, 소비 성장률은 약국 이 +206% YoY, 피부관리 153.9% YoY로 백화점(+89.2%)을 뛰어넘었다. 인바운드 소비를 백화점·면세점 중심의 '쇼핑' 회복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소비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이제 한국에서 명품과 먹거리만 구매하는 소비자가 아니다. 피부과 시술과 사후관리 제품을 함께 소비하는 K-뷰티의 새로운 투자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시대, 핵심은 피부과 수요

2025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01만 명으로 사상 처음 200만 명을 돌파했다.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팬데믹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원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131만 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성형외과도 23.3만 명, 11.2%를 기록했다. 외국인 환자의 87.7%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이는 외국인 의료관광의 중심이 대형병원 중증치료보다 강남·명동·홍대·성수 등 주요 상권의 피부과·성형외과 클리닉 기반 미용의료 소비에 가깝다는 의미다.

### 백화점은 1차 수혜, 다음 확산은 미용의료·사후관리(화장품) 밸류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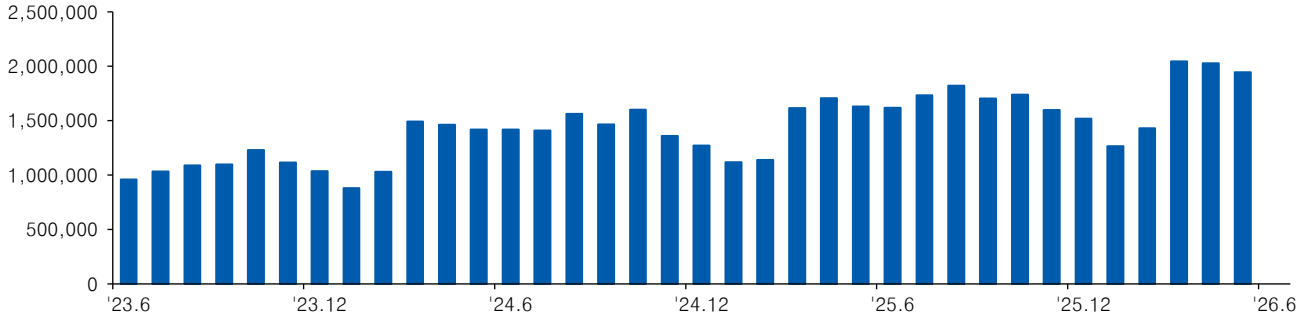
투자 관점에서 의료관광은 일반 관광보다 객단가와 반복성이 높은 고부가 소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료·건강검진 목적 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액은 2,408달러로 일반 쇼핑·식도락 관광객보다 높다. 또한 의료관광은 상담 → 입국 → 시술 → 회복 → 약국·화장품 구매 → 사후관리 →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K-뷰티 소비 구조를 만든다. 백화점은 외국인 소비 회복의 1차 확인 지표지만, 다음 확산 경로는 피부과 시술재, 미용의료기기, 특신·필러, 스킨부스터, 화장품, 의료관광 플랫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원화 약세는 관광객 내수 소비 진작 효과 보유 : 더 싸진 시술

탐다운 관점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소비 기대는 유효하다. 최근 들어 지속되는 원화 약세는 한국의 수출주 기업 이익 뿐 아니라 관광객의 내수 소비에도 우호적이다. 한국 서비스의 가격 매력을 상대적으로 높이며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시술, 숙박, 쇼핑을 소비하는 서비스 수출을 갖는다. 최근 호수출 대형주와 유통업 주가가 차별화되는 이유다. 다만 유통업과 달리 미용의료기기는 업황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1) 최근 성장률 피크아웃 의심에 따른 멀티플 디레이팅, 2) KOSDAQ 소외로 인한 수급 공백 3) 높은 기저효과 등을 반영하며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서 있다. 백화점에서 대중 소비로의 2차 확산 과정에서 얻을 알파(외국인 관광객) 수혜를 기대한다.

### 방한 외국인 관광객 월간 기준으로도 200 만명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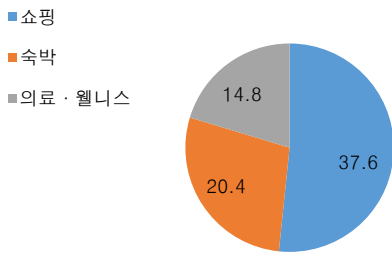
(명)



자료: 한국관광공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방한 관광소비 업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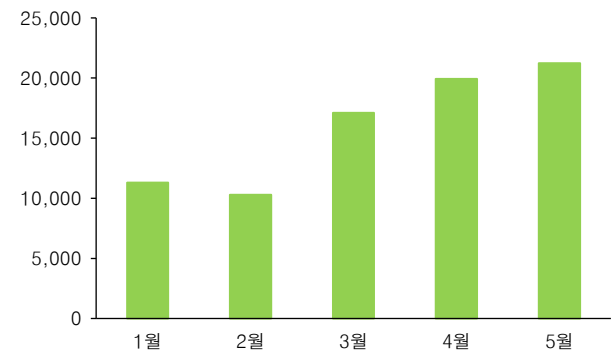
(%)



자료: 한국관광공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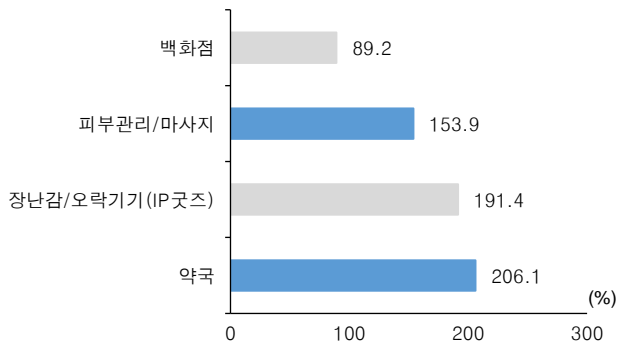
### 26년 월별 외국인 카드소비액 추이

(억원)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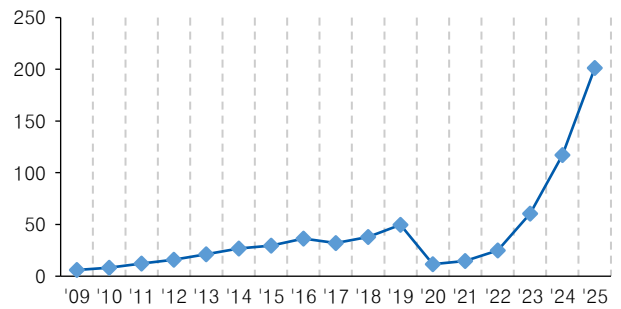
### 세부 업종별 외국인 소비 성장률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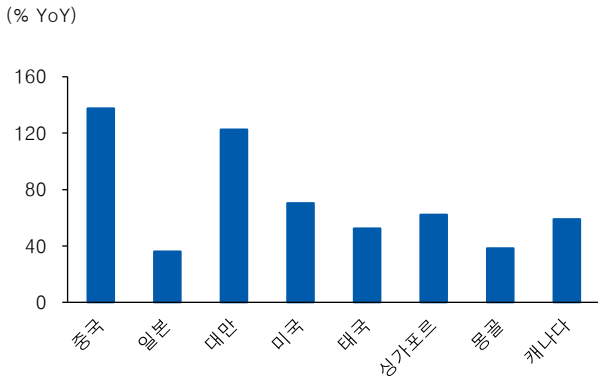
### 외국인 환자 수(실환자) 추이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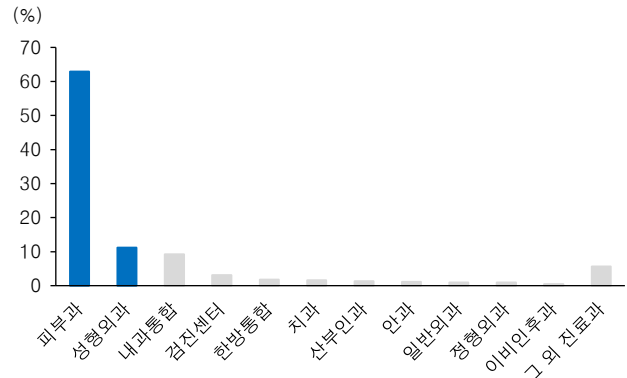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5년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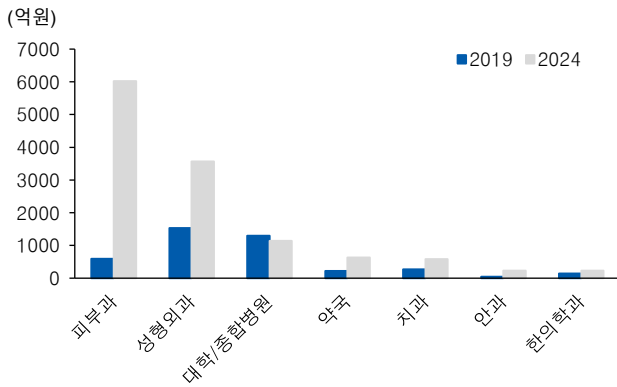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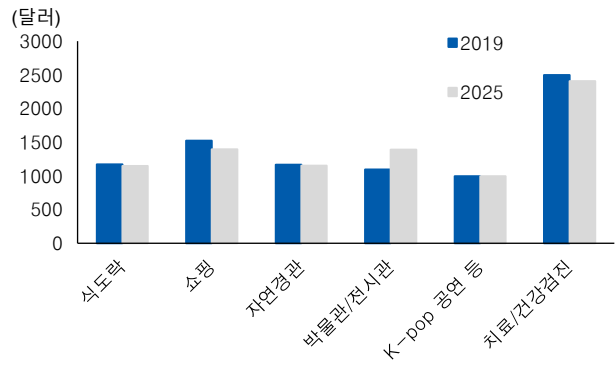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피부과 성형외과에 돈을 쓰는 외국인들



자료: 보건복지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관광 목적별 평균 소비금액



자료: 보건복지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명동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외국인 대상 피부과



자료: 한국경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방한 외국인 관광객 필수코스가 되어버린 올리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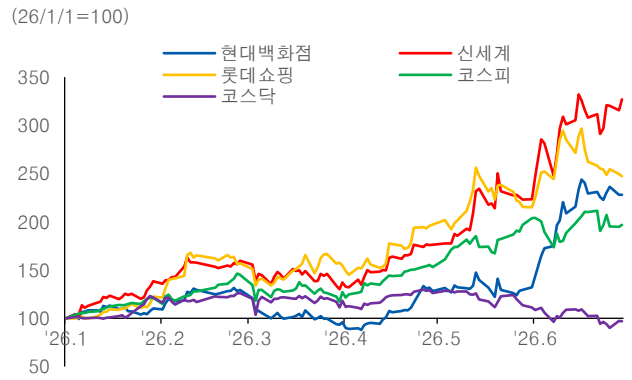
자료: 연합뉴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원화 약세? 외국인에게겐 쇼핑 천국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초 이후 아웃퍼폼 중인 백화점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아이디어 관련주

분류	회사명	시가총액(조원)	주가상승률(%)			PER(배)		PBR(배)		ROE(배)		EPS 성장률(%)	
			1M	3M	YTD	26F	27F	26F	27F	26F	27F	26F	27F
미용의료기기	클래시스	2.92	-22.17	-23.37	-17.89	16.46	12.78	4.38	3.52	29.1	30.27	37.1	29
	원텍	0.72	5.94	3.62	3.48	15.57	12.6	3.57	2.83	25.9	25.22	4	23.3
	하이로닉	0.10	-44.24	-44.24	-44.24	-	-	-	-	-	-	-	-
스킨부스터	파마리서치	3.06	-8.4	-15.6	-26.8	15.8	13.0	4.0	3.2	26.9	26.7	20.8	23.5
	휴메딕스	0.31	-25.3	-35.5	-32.0	-	-	-	-	-	-	-	-
특신-필러	휴젤	3.06	-5.51	-7.96	7.81	17.58	13.72	2.4	2	16.86	18.32	21.1	29.1
	대웅제약	1.51	-12.7	-25.92	-24.2	8.73	7.19	1.27	1.07	13.99	14.7	19.8	21.7
	메디톡스	0.70	-11.23	-25.16	-20.2	27.2	18.07	1.31	1.23	5.68	7.86	-	51.4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